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18.(화) 06:00,
(지면) 2023. 7. 18.(화) 석간

배포 2023. 7. 17.(월) 14:00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 처방대상 수산 동물용의약품 확대 지정으로 오·남용 방지, 2024년 7월 19일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amine), Praziquantel(프라지퀀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통한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수산 동물용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서진희 (044-200-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종관 (044-200-5625)

참고

참고자료 및 관련사진

[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지정 성분

마취제	모든 성분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비치오놀(Bithionol), 페반텔(Febantel), 펜벤다졸(Fenbendazole),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후마길린(Fumagillin Dicyclohexamine), Praziquantel (프라지관텔), 트리클로로폰(Trichlorofon),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구충제에 한함)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산 동물용의약품 >

